

# 가을날의 추억 쌓기... 전통문화에 빠져보자

7~29일 전통문화관 일대서 '무등올림'

‘혼·흥·멋·맛·정’... 다양한 프로그램  
7일 개막식 즐기기·취타대 연주...  
무형문화재·지역명인 초청공연  
전통의례음식 시연·장 담그기 체험



지난해 무등산 일대에서 펼쳐진 '2016무등올림'의 모습.

‘제3회 2017무등올림’이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2017무등올림은 ‘혼·흥·멋·맛·정’을 주제로 전통혼례, 국악, 한복, 다례, 목향, 장담그기 등 전통문화예술 분야 장인들의 기능과 예능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는 놀음판, 풍물세상 굿패 마루, 율 등 광주 지역 전통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 아마추어 예술공연단체들이 길가온 공연, 편백나무 숲속에서 즐기는 클래식 힐링음악회 등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식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무등올림의 개막을 알리는 판국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솟대대 앞에서의 식전 공연으로는 전통연희단 어울나라의 줄타기 공연과 서영무용단의 ‘여명의 빛’이 펼쳐진다.

이후 서여가 현대 유영현 선생의 서예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고 국악

인 박애리의 축하공연이 흥을 돋울 예정이다. 개막공연으로는 전통실내악단 율의 취타대 연주와 궁중음악, 신부네의 궁중혼례, 나빌레라예술단의 궁중무용이 펼쳐진다. 이어 광주시무형문화재 방성춘, 문명자 명인의 전국국악대제전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또, 우리 고유 전통문화예술의 ‘혼, 흥, 멋, 맛, 정’을 주제로 전통공연예술과 전통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흥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2017무등올림 김규량 총감독은 “우리 전통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많은 관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관혼상제, 공연, 참여, 음식, 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혼’의 특별기획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인간의 생로병사 가운데 중요한 의식들을 전통음악예술과 함께 선보인다. 생명이 자라는 ‘삼(생명)이 자라는 곳의 순우리말’을 소재로 관객들과 삼집을 만

들고 우리 민족의 문화원형인 관혼상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혼례, 성년례, 수연례 등을 중심으로 민속악, 산조음악, 창작음악, 무속음악 등을 들려준다.

‘흥’ 공연프로그램은 국악의 진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형문화재 및 지역명인 초청공연 등으로 준비된다. 평일 오후 2시부터 너털마당에서는 한국 춤의 백년사, 영화 ‘왕의 남자’에 직접 출연해 줄타기를 선보였던 권원태연희단이 남사당 줄타기를 선보이고,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된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인 정재국 명인이 무대를 선보인다. 류-산조음악 등 ‘국악산책’이 펼쳐지고 매주 일요일에는 무형문화재 방성춘(판소리), 문명자(가야금병창), 유영숙(무용), 황승욱(기악), 국악협회(가무악)가 준비한 전국국악대제전 축하공연과 무형문화재의 명예를 건 전국악대제전이 열린다.

이밖에도 무등산 편백숲 힐링음악회, 광주시립창극단, 태권한마당, 청소년 춤 축제 등도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 ‘멋’은 전통 차문화를 알리는 다례, 다식 만들기, 차문화체험이 함께 진행되는 ‘무등다향’, ‘한복마실’, ‘묵향산책’, ‘공예문화마루’ 등이 마련된다. 음식 프로그램 ‘맛’은 주말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전통의례음식 시연과 나눔, 다양한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주막, 남도전통장담그기, 김치명인과 김치담그기 등 남도 전통의 맛을 명인에게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이 준비하는 예술시장 ‘청년보부상’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 ‘정’은 국악장단을 배워보는 ‘쾌지나청정 국악놀이터’, 공예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도깨비공방 공예놀이터’, 전통민속놀이인 ‘풍류놀이터’, 전통 무예 태권 배우기, 가훈만들기, 율놀이 등이 펼쳐진다. 또한 무등산 편백숲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생태놀이가 마련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문소리 7일 광주극장서 ‘관객과의 대화’

감독 데뷔작 ‘여배우...’ 상영

최근 단편영화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배우 문소리(사진)가 광주극장을 찾는다. 광주극장은 오는 7일 오후 7시20분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를 상영한 후 배우 문소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영화 ‘박하사탕’으로 데뷔한 후 ‘오아시스’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문소리는 최근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여배우는 오늘도’는 데뷔 18년 차 중견 여배우의 현실을 담아낸 작품이다. 감독, 각본, 주연까지 맡은 문소리는 자기 발랄한 연출력과



여배우, 그리고 여자의 삶이 녹진하게 묻어난 작품을 완성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소리는 이날 감독과의 대화에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 등 관객들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개봉한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는 개봉 2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했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강성률 교수 단편소설집 ‘딸콩이’ 출간

‘동생’ 등 단편소설 5편 담아

광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단편소설집 ‘딸콩이’(작가와 비평사)를 출간했다.

미주한국기독교문화학인상을 수상한 중편소설 ‘딸콩이’ 외에 철부지 동생에 대한 애증을 그린 ‘동생’, 어미돼지가 도살되는 장면을 그린 ‘피의 축제’ 가난한 중에도 유유자적할 줄 아는 주인공 ‘허씨 할머니’ 등 4개의 단편 등 모두 5편이 수록됐다.

소설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잉태된 수많은 비극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작가는 “작은 풀잎 하나, 땅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 왜소한 몸집의



반려동물 하나가 인간존재와 비교하여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는 전남문학신인상을 통해 문단에 나왔으며 ‘딸콩집 이야기’,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광주평화통일 포럼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송순섭과 문생들 ‘적벽가’ 연창회



9일 순천 낙안읍성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국창 송순섭(사진)과 문생들의 ‘적벽가’ 연창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다.

유영대(고려대 한국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호랑이 ‘적벽가’의 진수를 여러 명의 소리꾼이 이어 부르는 연창 형식으로 들을 수 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를 시작으로 ‘적벽대전’ 등을 아우르는 ‘적벽가’는 중국 역사 이야기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새롭게 우리 민족 정서에 맞게 개작한 부분이 많다.

이번에 송 명창이 선보이는 ‘적벽가’는 송만갑에서 박봉술로 이어지는 정통 동편제로 호령하듯 소리를 지르고, 소리에 맞는 발림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다. ‘도원이 어데인고’ 대목부터 ‘서안을 당랑’ 부분까지를 신정해(광주시립국극단 단원)씨가 부르며 박운중(광주시립국극단원), 박명연, 신정해, 노민하, 이현정씨 등 ‘적벽가’ 이수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송순섭 명창은 ‘그 때여 조조는’부터 ‘오립산곡 양편에서’ 대목까지를 부른다. 고수는 이낙훈, 정항자씨가 맡는다. 이송휴 문화상 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동편제로 호령하듯 소리를 지르고, 소리에 맞는 발림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다. ‘도원이 어데인고’ 대목부터 ‘서안을 당랑’ 부분까지를 신정해(광주시립국극단 단원)씨가 부르며 박운중(광주시립국극단원), 박명연, 신정해, 노민하, 이현정씨 등 ‘적벽가’ 이수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송순섭 명창은 ‘그 때여 조조는’부터 ‘오립산곡 양편에서’ 대목까지를 부른다. 고수는 이낙훈, 정항자씨가 맡는다. 이송휴 문화상 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낯선 시각

정안나 시인 시집 ‘붉은 버릇’ 출간

“마을버스에서 출렁 출렁 붙어 앉았다 그가 내린 자리/ 내 옆구리에 필사적인 온기가 남아/ 부분으로 전체를 묻는 자리// 내 등을 내가 안은 듯 서정적으로/ 갈비뼈 안의 내장을 만지고/ 얼굴도 영혼의 크기도 모르면서/ 은신처에서 온도를 바꿔가며 웅크려...”(‘낯선 온기’ 중에서)

시산맥 기획시선으로 발간된 정안나 시인의 ‘붉은 버릇’은 낯선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희생양’, ‘낯선 온기’, ‘가면은 여자의 것’, ‘식탁이 있는 정물’, ‘겨울우산’ 등 모두 50여 편의 시에 내재한 특징은 ‘낯선 이미지’다. 문학의 본질이 ‘낯설기’를 통해 새로운 감성,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정안나 시인의 작품은 본질에 부합한 시라고 할 수 있다.

“떠나는 이는 날마다 반칙 같아/ 날마다 등은 달리고 먼저 간다/ 뒤따라서 조문 가는 일은--시락국이 맛있어/ 이모를 외쳐 한 그릇 더 맛있어/ 술을 권해 잔



부딪치는 붉은 꽃무늬/ 예의를 몰라”

표제시 ‘붉은 버릇’은 장례식장 조문을 하고 나온 화자의 심상을 담고 있다. 조문을 소재로 낯선 이미지로

형상화한 발상이 범상치 않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낯선 시각이 시를 읽는 이에게 잔잔한 파문을 던진다.

문학평론가인 김남석 부경대 교수는 “시의 운명 자체가 일상어에 대한 도발이겠지만, 정안나의 시는 언뜻 보면 단정하고 얌전한 외양 너머에 좀처럼 거느리기 힘든 불순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그 충격은 물결처럼 감정의 파문을 끌며 끈질기게 이어져간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2016년 10월24일자 17면에 보도한 연합뉴스의 ‘박진성 시인 활동 중단’제목의 기사에서 “미성년자를 포

함한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박진성 시인도 공개 사과했다”부분은 박진성 시인과 관련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